

“국민 품속 청와대,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은 계속된다.”

- 박보균 장관, 청와대에서 열린 에이플러스 페스티벌 참석해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 지속 확대 의지 밝혀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9월 1일(금)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3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에이플러스 페스티벌(A+ Festival)’의 개막식에 참석했다. 청와대에서 장애예술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8월 ‘제1회 장애예술인특별전’, 올해 4월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 춘추관 특별 공연에 이어 세 번째이다.

박 장관은 격려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으로 국민 품속에 들어간 청와대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의 전당이 됐다. 이러한 인식을 이어가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늘 개막하는 페스티벌이 성공해야 하고, 또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이번 페스티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의 무대, 그리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당당히 예술성으로 경쟁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개막식에는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신동일 회장 등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국회에서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2023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대회장), 김예지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한 배은주 조직위원장은 “두 번째 춘추관 특별전을 통해 장애예술이 또한번 국민들과 만나 비로소 빛나는 예술이 되었다”라고 개최 소감을 밝혔으며, 방귀희 회장도 “장애인문화예술축제가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날이 온 것이 감격스럽다. 장애예술인들의 위상이 그만큼 향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보대사이자 올해 제59회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연기상을 수상하기

도 한 배우 하지성 씨는 “장애 배우로서 백상예술대상 무대에 오르고 수상까지 하게 된 것이 아직까지도 감격의 순간으로 남아있다. 모든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들이 꾸준한 창작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을 만나게 되기를 응원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별전에 참여한 이규재 작가의 어머니 김은정 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춘추관에서 장애예술인 특별전이 열려 기쁘다. 청와대가 매년 장애 예술이 국민과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작년 KBS1TV의 프로그램 <인간극장>에도 출연했던 ‘민요자매’(이지원, 이송연)는 국악인 김영임 씨와 함께 개막 무대에서 공연을 펼쳤다. 자매 중 언니인 이지원 씨는 작년 발달장애인 최초로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가 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 함께 공연을 한 김영임 씨는 “청와대가 장애와 상관없이 예술인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국민과 만나는 공간이 된 것을 보니 감회가 깊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에서 장애인 특별전과 페스티벌을 개최한 것과 함께, 역대정부 최초로 마련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법·제도 도입, 인프라 구축, 창작 지원확대와 같은 전방위적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가을 개관 예정인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을 비롯해, 앞으로도 장애예술인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상상력과 예술성을 발휘하고 국민들이 더욱 가깝게 장애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 행사사진 별도 송부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정은 (044-203-2711)
		담당자	사무관	윤봉수 (044-203-2724)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지적브리핑

